

敎養敎育과 專門敎育



大韓敎聯 會長 柳 炯 鎭

I 머리말

敎育의 기본적인 機能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가 소속하고 있는 社會의 文化的 價値를 이해하고, 그 社會의 運命을 개척하는 데 적극적으로 參與하고 奉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즉 敎育은 훌륭한 社會人을 형성하기 위하여 傳承된 文化를 다음 世代에 넘겨주고 나아가 이를 保存하고 創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업이다.

그런데, 科學과 技術이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우리의 生活이 더욱더 복잡해지며, 또 우리의 직업도 더욱 細分化되어 간다. 이에, 현대인은 제각기 자기의 소질과 능력에 부합되는 專門的 지식과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敎育의 중대한 領域의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專門敎育이다. 그러나 여하한 專門職에 종사하는 사람일지라도 實力 있는 기술자나 전문가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동시에 훌륭한 人間性의 소유자이자 자기의 責任을 다하는 社會成員의 한 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현대敎育이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영역이 바로 敎養敎育이

다.

敎育의 기본적인 기능인 훌륭한 人間을 形成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상과 같은 두 가지 領域이 서로 調和를 이루고 균형을 취하도록 하여야 하겠고, 오로지 科學文明이 발전하면 할수록 前者와 後者 사이의 균형과 조화가 깨뜨러지기 쉬우니, 그것은 艱難일로에 있는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터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變化에 적응할 수 없는 나머지 人間性의 陶冶를 위주로 하는 敎養敎育에 대해서는 자칫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극단적으로 分化되어 갈에 따라서, 敎育도 多樣性을 띠는 것으로 탈바꿈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放置해 두면 자연히 이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統合的인 요소가 결핍되기 쉽다. 말하자면, 專門敎育에 치우치게 될 때 이 사회의 共通基盤이 무너져, 이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敎育은 우리 모두가 거기에 의거하여 살아갈 共通基盤으로서의 文化와 敎養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共通基盤으로서의 文化와 敎養은 어디서 가져와야 할 것인가? 대체로 그것은 우리의 傳統 즉 文化遺産에서 찾는 것이 가장 권위가 있는 길이다. 현재의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밝히기 위하여 過去를 거울 삼는 것은 중요한

기 때문이다.

II. 傳統과 變化

이것은 우리 인간이 過去를 배움으로써 現在의 생활을 풍부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며, 또한 오랜 歷史를 통하여 걸러진 著作에 의하여 현재는 보다 더 뚜렷하게 밝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教育은 지난날 우리의 先祖들이 파헤친 갖가지 思想들 사이에 놓인 共通의인 基礎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學生들에게 습득시킴으로써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언제나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어떤 信念 위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런 이유로 教育의 중요 임무는 그러한 공통적인 信念을 널리 침투 보급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와 같은 論理는 필연적으로 教育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를 제기하게 한다. 즉 이러한 공통적인 信念에 대한 요청을 變化에 이끌려 나갈 수 있는 새롭고도 主體의인 洞察에 대한 요청과 여하히 조화시킬 수 있을가 하는 문제이다. 이 變化의 개념은 傳統 내지 文化遺産의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며, 教育學的으로 볼 때, 제임스나 듀이와 같은 實驗主義 哲學과 더욱 관련되는 것이며, 그것은 科學이나 科學的態度 또는 實用主義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견해이다.

그것은 實驗의 과정을 거쳐서 확인된 資料에 의해서만 어떤 결론을 추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자료는 얼마든지 增加할 수 있으며, 또 결론도 얼마든지 다른 새로운 결론을 유도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란 결코 알려질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는 끝없이 도출되는 새로운 사실에 의거하여 眞理에 접근해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文化遺産의 전승에 치중하는 입장과 그와 반대로 變化를 추구하는 實驗主義의인 입장은 서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전자에 있어서는 眞理에 대한 順從意識이 강한데 비하여 후자에 있어서는 好奇心에 가득찬, 그리고 變化에

대하여 기꺼이 대처해 나갈 수 있는 流動的인 자세가 그 특징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兩者의 입장은 그대로 教育에도 반영되어, 전자가 절대적인 眞理觀에 입각하여 古典에 담긴 文化遺産의 傳授를 教育의 주요 기능으로 삼는데 대하여, 후자는 事實들의 발견을 중요시하고 變化와 進歩를 촉진시킬 수 있는 實證的인 결론을 추출하는 과정에다 教育의 주요 기능을 두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兩者 사이에 커다란 갈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實用主義에 있어서의 實驗的인 思考라든가 대도자체는 그들 세계의 사상적 유산과 아주 별개의 것일 수는 없으며, 넓은 의미로는 오히려 文化傳統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現代科學은 결코 근래에 이르러 한꺼번에 이룩된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은 이미 古代의 經驗主義 哲學에서부터 나왔으며,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의 觀察에 대한 熱意라든가 抽象的인 推理를 不信한 思想, 傳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教育의 참된 課題는 文化遺産에서 끌어낼 수 있는 方向意識을 科學으로부터 유도해 낼 수 있는 實驗精神 내지는 革新意識과 조화시킴으로써 좋은 結實을 맺도록 하는 데 있다. 어쨌든 오늘의 大學은 傳統이나 變化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며, 또한 理想에만 치중한다거나 方法에만 치중하는 일이 없이 양쪽을 다 같이 떠받들면서 풍부한 人生을 창조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영되어야 한다.

III. 相互補完의 必要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이 장차 종사하게 될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專門教育인데 대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책임감이 투철한 훌륭한 人間性을 갖추어 주는 것’이 教養教育이다. 그런데 人生에 있어서의 이 두 면은 分離시키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教育의 兩面을 뚜렷하게 갈라 놓기도 어렵다.

教養教育을 영어로 liberal education 이라고 하던 것을 근자에는 general education 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두 用語는 自由人을 기르는 教

育이란 뜻으로는 같은 것이나, 첫째로, 後者가 前者보다는 中等學生 또는 보다 下位단계의 학생에게까지도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르며, 둘째로, 前者 즉 리베럴 에듀케이션은 그 말이 처음에 사용되던 희랍시대에 좋지 못한 印象을 주었기 때문에 재박럴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희랍시대에는 自由人과 노예, 그리고 支配層과 被支配層으로 나뉘어져서 노예는 비천한 노동직업에 종사한데 반하여 自由人은 市民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만 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모든 교육은 직업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人文의 인 것에 한정되었다. 自由人은 社會에 있어서의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는 원만한 人格을 함양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職業教育이나 專門教育은 眼中에도 없었다.

産業化時代인 오늘날에 있어서도, 모든 社會人에 대하여 自己判斷과 自己制禦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思考와 판단으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는 人間을 길러내야 한다.

또 오늘날에 있어서는 여하한 사람도 어떤 專門의인 직업에 종사하지 않고서는 훌륭한 삶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교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는 오늘과 같은 극단적인 專門化時代에 있어서는 專門人들의 편협하고도 제한된 견해에 의하여 이 사회가 다스려질 때 발생할 혼란과 不條理를 여하히 제거할 수 있겠는가에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專門職業에 대한 훈련의 필요가 나날이 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教養教育에 더욱 큰 比重을 두지 않으면 균형이 깨뜨러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마디로 專門主義는 社會에 있어서의 遠心力으로 작용하는데 대하여 教養教育은 求心力의 구실을 한다. 그것은 어떤 분야의 專門人은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사용하는 言語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大學은 모름지기 학생으로 하여금 人生의 복잡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가르쳐 나가야 한다.

IV. 現代教育의 病弊

어쨌든, 專門教育과 教養教育은 서로가 보완될 때에 社會發展의 추진력이 될 수 있다. 오랜 歷史를 통하여 남아 내려온 社會의 理想과 規範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實驗과 觀察을 통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여 變化와 革新을 촉진시켜 나갈 때 비로소 이 社會는 전진한 기반 위에서 進歩發展하여 나갈 것이다.

專門教育은 단순한 職業教育의 태두리 속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教養教育은 단순한 文學이나 藝術의 울타리 속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가령, 어떤 科學者가 자신의 偏狹을 벗기 위하여 文學과 藝術을 탐독 감상하는 것은 좋으나 자칫 그는 人文學만이 教養과 관련되는 것이며, 科學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古代 희랍의 哲學者들은 幾何라든가 天文學과 같은 것도 휴메니티즈(Humanities)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이렇듯 專門教育과 教養教育의 차이는 어떤 科目을 가르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方法으로 그 內容을 가르쳐야 하느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文學을 가르치더라도 기술적인 手法로만 다룬다면 그것은 단순한 言語學 공부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美術도 다루기에 따라서는 美術史 공부의 次元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文學도 美術도 教養教育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專門教育의 역할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며 이 경우 專門教育으로서는 事物 사이에 늘인 一般의인 관계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음은 自明한 일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특히 경계하여야 할 점은, 현대 社會의 극단적인 專門主義 때문에, 교육전체가 부지불식간에 편협한 專門化의 방향으로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大學의 教授들이 고도로 專門性을 띤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관계로 그들의 전문적인 지식만을 생각하고 가르치려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學問은 수없이 많은 분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폭넓은 教養을 쌓아 풍부한 常識이 있는 국민이 되려고, 개론적이고 일반적

인 코스를 택하려는 學生들은 늘 좌절감을 면치 못한다. 마땅히 敎養科目으로 가르쳐져야 할 코스도 어떤 특정분야를 전공하기 위한 豫備科目格으로 가르쳐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文學의 길로 나아갈 학생에게 自然科學 코스의 物理學이나 化學을, 각각 專攻分野에 대한 준비로 가르치던 아무런 소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하다.

V. 科學萬能의 思考는 버려야 한다.

위에서 우리는 敎養敎育과 專門敎育의 일반적인 理論을 전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 敎育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科學萬能의 편협하고도 그릇된 敎育觀은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나라를 近代化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우리가 科學과 技術의 도입에 힘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보다 많은 食糧과 보다 나은 健康과 보다 훌륭한 交通·通信施設 등의 물질적 생활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이는 절대 不可缺한 要件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아직도 요원한 非科學性과 非合理性을 生活과 敎育에서 제거하기 위하여 우리의 敎育내용과 敎育방법은 늘 재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敎育心理學과 敎育評價法과 敎育工學 등이 계속 강조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人間生活과 이와 직결되는 敎育活動에는 科學이나 技術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설명한 바 있는 價値와 規範의 측면이다. 이 規範의 영역이야말로 우리가 보다 풍부하고 의미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善惡의 判別 기준을 제공하여 주는 극히 중요한 것으로서, 이는 眞과 僞를 분간하는 일을 생명으로 하는 自然科學의 範疇 밖에 있는 분야이다.

근래에, 自然科學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기술이 급속도로 개발된 반면, 價値의 영역을 규명하고 그것을 심화 침투시키는 데 소요되

는 우리 인간의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科學者들은 人文學의 분야를 지나치게 소홀히 다루게 되었고, 반대로 人文學者들은 科學을 경시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職業人이나 專門人으로서의 대부분의 국민은 오직 자기 분야에만 관심을 집중한 채, 이 사회와 국가의 전반적인 문제를, 全體를 보는 限目으로 洞察 把握하여 각자의 책임을 다하려는 데는 실패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계하여야 할 것은 바로 科學萬能의 思考이다. 이와 같은 科學萬能의 思考는 결국은 『科學的 未熟』에서 경과한 것이다. 우리는 一九세기의 實證論的 唯物主義 時代를 포함한 모든 시대에 있어서 위대한 科學者들은 대개가 科學이 내포하고 있는 哲學的 含蓄性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서는 科學만으로도 人生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따위의 교단은 볼 수가 없었다. 오늘날의 많은 科學者들은 方法과 目的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VI. 맺는 말

끝으로, 이 나라의 敎養敎育은 특히 우리의 역사적인 傳統과 사회적인 條件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主體的이고 創造的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통의 창조적인 개발에 힘써야겠다는 것이다.

종전의 敎養敎育은 外國의 그것을 지수입, 모방한 데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美國의 敎養敎育은 歷史와 傳統을 달리는 그 사회의 필요와 敎育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體系 세워진 것인 만큼, 우리의 독특한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韓國의 思想과 民族魂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東洋 古典의 공부가 不可缺할 것이다. 그것은 敎養敎育의 기능이 前述한 것처럼, 한 사회의 역사적 전통을 통해서 창조되어 내려온 文化遺産을 계승함으로써 우리의 價値生活과 規範意識을 확립하고 나아가 人間關係의 圓滑을 기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